

韓國에서의 民主主義의 過去와 現在

梁 好 民

I. 簡略한 回顧

III. 韓國의 民主主義의 方向

II. 傳統으로부터의 脫皮

I. 簡略한 回顧

本論에서의 民主主義란, 主權이 國民에 있고 國民들에게 言論, 出版, 結社, 集會, 信仰의 自由를 保障하고, 複數政黨制度和 國家權力의 分立을 필수적 조건으로 하며 普通選舉를 통하여 國民이 자기들의 政府를 選출하는 民主主義, 通稱 歐美式 民主主義라고 규정하며, 韓國에서는 ‘自由民主主義’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의 民主主義를 의미한다. 따라서 敎導民主主義, 基礎民主主義등 한때에 출현했다가 소멸한 ‘民主主義’나 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주장하는 ‘人民民主主義’ 내지는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는 論外로 한다.

1948년 5월 南韓은 이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普通選舉를 통하여 大韓民國國會를 選출했고 여기서 제정한 憲法에 따라 8월 15일 大韓民國政府를 수립했다. 大韓民國은 따라서 투표로 選출된 이나라 역사상 최초의 民主共和國이 되었다. 第2次 世界大戰後 日本帝國主義勢力이 韓半島에서 물러간 후 韓國人들은 당시의 普遍的 國際的 思潮를 타고 民主主義를 自명한 公理처럼 받아들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民主主義를 해방이 가져다 준 선물로 생각했다. 그 앞에 험란한 장애물과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처 예견하지 못하고 순탄한 진보를 낙관하고 있었다. 이 시련이 얼마나 컸던가는 1952년 第1次 改憲에서 1987년에 이르기까지 35년

사이에 무려 9次的 改憲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중 단 1回(4·19學生義舉後 60年 6月)를 제외하고는 大統領에로의 權力集中, 特定人의 再選—3選—4選—永久執權—當選이라는 목표에다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1987년의 9次 改憲은 연속되는 정치소란의 결과로 野黨이 주장해 온 大統領直選—中心制가 與黨의 ‘굴복’에 의하여 실현되었지만 單一候補를 내지 못한 野黨의 分裂로 말미암아 그들은 집권을 위한 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상의 모든 改憲은 民主主義나, 獨裁나와 격렬한 정치적 파동이 아니면 軍事쿠데타의 여파속에서 단행되었던 것이다.

韓國의 民主主義가 실패한 원인은 一次的으로는 解放直後 世界를 두 개로 갈라놓은 美·蘇의 國際的 冷戰이 南北으로 分斷된 韓半島에 그대로 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韓半島가 아시아에서 冷戰의 主舞臺로 변했다는 객관적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北으로부터의 不斷한 이데올로기 攻勢와 게릴라의 도전에 직면해 있던 韓國은 民主主義의 뿌리를 내리는데 필요한 평온한 환경을 가질 겨를이 없었다. 둘째는 1950년의 韓國戰爭이다. 韓國歷史上 최대의 내전인 동시에 國際戰의 성격을 띤 3년간의 가혹한 전쟁은 약간의 輕工業과 採取產業을 가진 이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다. 이 전쟁을 韓國의 경우 民主主義와 反共이라는 理念에서 치렀지만 그 가열된 상황에서 民主主義는 멀어 갔고 강렬한 反共意識만이 남게 되었다. 52년의 第1次 改憲은 전쟁의 와중속에서 臨時首都 釜山에서 일어난 非쿠데타의 政變이었다.

세째로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家父長的 權威主義化였다. 初代大統領 李承晩博士의 名望은 民族主義者들 사이에 압도적이었지만 그의 편협한 정치가로서의 개성은 韓國戰爭 以前의 政局에 극심한 분쟁을 일으켰다. 韓國戰爭中 戰爭수행을 위해 부여한 大統領의 확대된 權限을 남용하여 再選을 위한 改憲을 단행했고 그후 3選, 4選을 위한 길을 터놓았다. 더우기 국내사정에 어두웠던 이 老齡의 大統領은 아침에 능한 소수 측근자들에 의해 포위되어 더욱 權威主義化해 갔고 드디어는 權坐에서 밀려나 망명

의 길을 떠나는 悲運을 맞이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애국심이 강했고, 청렴했고, 東西의 교양을 아울러 지녔던 그는 韓國의 George Washington 이 되지는 못했다. 初代大統領의 수치스러운 退陣은 韓國民主主義의 위엄을 손상시켰고 국민들로 하여금 精神的 求心點을 상실하고 당황케하는 결과를 後代에 남겼다.

네제는 軍部の 팽창이다. 韓國戰爭을 계기로 하여 군대는 量的으로 급속히 팽창해 갔고 전후에도 남북의 위험한 대치상황에서 그 수는 50 만으로까지 증가해 갔다. 그리고 敎育의 質의 向上, 行政技術의 習得, 統帥力의 熟達 등으로 그 힘은 성장해 갔으며 그러한 사이에 軍의 일부 장교들은 스스로 민족엘리트란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훈련과 규율과 질서의 兵營生活에서 살아 온 그들의 대부분에 있어서 個人的 自由니 民主主義니 政黨政治니 하는 것보다는 國家, 國土防衛, 安保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했다. 4·19義舉後 自由選舉를 통해 선출된 張勉內閣은 民主主義原則에는 충실하려고 애썼으나 政變直後의 社會的 難脈狀과 학생시위에 의하여 갈팡질팡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취약한 政權은 政治意識과 權力慾에 불타는 일부 군인들에게는 정권탈취를 위한 절호의 찬스였다.

그리하여 일어난 것이 朴正熙將軍이 꾸민 61년의 5·16 쿠데타였다. 그 후 朴政權은 옷을 민간복으로 갈아 입고 '民政移讓'을 했지만, 이것은 원손에 쥐었던 자기의 권력을 오른손에 넘긴 것에 불과했다. 5·16 쿠데타는 無血政變이었음으로 朴正熙將軍은 2選만에 만족하고 自由選舉를 실시하여 平和的 政權交替의 先例를 보여줄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날치기 방법으로 3選을 위한 改憲을 강행했고, 72년 10월에는 드디어 維新獨裁體制를 펴면서 終身執權을 계획했다. 大韓民國 憲政史上 가장 암담하고 偉善과 기만에 찼던 이 시대는 7년이나 계속되었다. 79년 10월 26일 朴政權은 自中之亂에 의하여 궤멸함으로써 18년 5개월이나 계속된 그의 통치는 막을 내렸다.

朴政權이 붕괴한 후 韓國에는 잠시 民主化를 위한 과도기가 설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復權, 復校, 復職, 釋放되고 政治活動은 활기를 띄우고 있었다. 그러나 79년 12월 12일, 이번에는 軍內部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실권은 全斗煥將軍을 중심으로 하는 장성들에게 넘어 갔고, 80년 5월 17일의 光州悲劇을 거쳐 명실공히 軍事政權이 출범했다. 81년 정식으로 발족한 全政權은 朴政權의 연장선상에 서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朴正熙 개인을 공개적으로 格下시키지는 않았지만 維新體制를 비판하고, 그 주역들을 축출하면서 權力엘리트들 새 인물로 교체하고, 구호를 바꾸고, 새로운 國政의 指標를 내세우면서 朴政權과의 무관, 단절을 보여 주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全政權의 正統性問題에 대한 논란과 항의는 그칠 날이 없었으며 ‘獨裁’, ‘軍事政權’이라는 비난은 그 마지막 날까지 가시지 않고 있었다. 8次 改憲때에 명기한 單任制가 全政權의 正統性 代役을 하면서 간신히 연명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헌법에 규정된 大統領間選은 軍事政權의 연장을 가져올 뿐이라는 인식에서 直選制 改憲을 요구하는 투쟁이 野黨, 在野의 각 단체, 학생들 사이에서 광범하게 일어나 87년 5~6월에 절정을 이루어 심각한 정치위기를 이루게 되었다. 여기서 盧泰愚씨는 비상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6·29 宣言’을 발표하고 野黨의 大統領直選制 주장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위기를 넘겼다. 그후 國會에서는 與·野의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 現行憲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野黨이 野黨의 執權을 위하여 쟁취한 大統領直選制 憲法에도 불구하고 두 金씨의 분열로 말미암아 政權은 盧泰愚씨에게로 넘어가고 말았다. 그후 韓國의 憲政史는 第6共和國이라는 이름아래서 民主主義의 再建期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II. 傳統으로부터의 脫皮

이상은 解放以後 韓國에서 民主主義制度가 왜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가를, 기구한 憲政史에 비추어 간략하게 스케치한 것이다. 이 밖에도 國民

大衆의 民主意識의 脆弱性, 民主的 訓練의 부족, 경제적 빈곤, 전통적 정치문화의 強靱性 등 民主主義의 受容을 가로 막는 허다한 要因들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장구한 專制政治의 영향이다. 1392년에 창건된 朝鮮王朝은 1910년 大韓帝國의 영토가 日本帝國主義의 완전한 植民地로 전락할 때까지 근 500년을 존속해 왔다. 이 협소한 국토위에서 500년을 지속한 한 王朝의 통치기간은 너무나 장구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말기에 가서는 보수적 속성과 퇴폐와 침체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朝鮮王朝은 두 개의 피라밋형 位階組織(Hierarchy)을 존립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專制君主主義體制였다. 그 중의 하나는 國王을 정점으로 하고, 그 밑에 議政府, 六曹, 地方部의 序列로 權力이 體系화된 전형적인 中央集權의 統治體制였다. 다른 하나는 國王을 家父長的 權威의 절정으로 하고, 그 밑에 王族, 兩班, 中人, 胥吏, 良人(閑良, 農民), 賤人(奴婢, 白丁, 賤人, 廣大, 巫堂 등)의 서열로 상하의 신분이 체계화된 封建的(前近代的) 社會政治體制였다.¹⁾ 朝鮮王朝의 政治的, 社會的 秩序는 이 이중적 位階秩序에 의하여 지탱되어 왔으며, 극소수의 國王 및 王族, 兩班, 中人, 胥吏가 넓은 의미의 지배계급의 지위에, 압도적 다수의 良人과 賤人身分이 피 지배계급의 지위에 있었다.

兩班官僚의 補弼을 받는 國王의 權力行使는 司諫院制度, 上疏制에 의하여 견제를 받기는 했으나, 그는 立法, 行政, 司法, 軍事 등 국가의 전기능을 독점하고 있었다. 이 二重的 位階秩序의 구조는 극히 정교, 엄격했으며 前近代的 保守政治의 강고한 기반이 되었다. 당시 빈궁하고 무지했

1) 朝鮮王朝를 통치한 이중적 위계조직, 즉 中央集權의 國家權力體系와 封建的 社會階級制度는 表裏關係에 있었다. 이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李熙鳳, 「韓國法制史」中, “李朝時代의 官制”(高大 亞研編, 「韓國文化史大系」1); 샤를르 다렐 著, 「鮮鮮教會史序論」(探求論攷中 ‘國立’, ‘政府’ 및 ‘法廷’); 讀書新聞社編, 「韓國史의 再照明」中, “韓末支配階級の 特性”; 朝鮮歷史編纂委員會編, 「朝鮮民族解放鬩爭史」(日譯 1952년)中 白南雲의 “19世紀後半期の 朝鮮” 등에 의거했음.

던 피지배계급이 이러한 제도를 전복하고 권력을 상대적으로나마 분산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했으며, 兩班官僚들이 王權을 제약하는 立憲君主制의 쟁취같은 것도 기대할 수 없었다. 지식인들이 民權, 主權在民, 國民平等權 등에 눈을 뜬 것은 19세기 말엽 서양사상의 영향하에서였다.

朝鮮王朝를 정신적으로 떠받들고 있던 것은 儒敎思想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朱子學이었다. 朱子學은 한마디로 王朝의 國家이데올로기²⁾였다. 그 秩序主義的 名分思想은 專制主義 中央集權制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적합했다. 朱子學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三綱五倫의 敎義는 엄격한 도덕적 질서를 확립했고, 여기서는 家父長的 家族主義가 절대화되었다. 國王은 國父로, 王妃는 國母로 숭앙되었다. 父에 대한 子息의, 年長者에 대한 年少者의, 支配者에 대한 臣下의 절대복종은 왕정의 유지와 사회의 질서, 나라의 안녕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孝悌思想은 백성들의 국왕에 대한 忠順과 연결되어 있었다.

倫理的 規範이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 <禮>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규칙을 정립함으로써 朝鮮王朝社會에다 내면적인 유착력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국가의 政治이데올로기적 측면과 人間倫理의 절대화된 律法的 側面을 아울러 지녔던 朱子學은 왕권을 공고화하고 兩班官僚들의 백성들에 대한 지배를 용이케 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던 것이다.

朱子學은 哲學으로서의 정밀하고 심오한 체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專制主義에 봉사한 어떤 敎義와 『마찬가지로 朱子學도 累百年에 걸친 사상과 사고의 독점적 지위를 통해 敎條主義와 劃一主義로 변질하면서 사람들의 獨創의 思索을 저지하게 되었다. 朝鮮王朝는 退溪와 栗谷같은 大哲을 배출한 영예를 지니는 동시에 대다수 유학자로 하여금 刑而上學的 思辨과 空理空論(退溪도 포함)에 몰두케 하여 기술, 산업, 과학, 상행위의 중요성

2) 朝鮮王朝의 國家이데올로기에 관해서는 「韓國史: 近世前期編」, pp. 681~706; 洪淳和, 「韓末의 民族思想」(담자문고); 崔昌圭, 「朝鮮朝의 儒敎의 統治理念」 및 尹絲淳, 「性理學의 韓國의 變容」(前掲《韓國史의 再照明》에 收錄)을 참조했음.

을 무시했고 빈궁에 시달리는 민생을 구출하는 연구를 소홀히 했다. 이론바士·農·工·商의 왜곡된 신분적 직업관은 사회적 생산력을 극도로 위축시켜 시민계급의 성장을 저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朱子學의 이데올로기적 특징인 도그마틱하고 폐쇄적인 측면은 일체의 敎說을 이단으로 배척하여 관용치 않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佛敎, 西學(天主敎)은 물론 中國의 諸子百家의 思想, 東學, 심지어는 陽明學까지도 邪說 또는 斯文亂賊으로 몰리어 선비들은 수다한 士禍와 投獄, 流配를 겪어야 했다. 어떤 사상이든 국가이데올로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자유로운 논쟁, 여타의 사상과의 경쟁적 공존을 허용치 않을 때 그 자체에도 발전은 정지되고 스킨라哲學으로 화할 수 밖에 없다. 朱子學의 본질에 관해서는 논할 자격이 없으나, 이상의 여러면들은 朝鮮王朝에서 수용된 朱子學의 이데올로기적 폐단이었다. 이러한 정신문화의 풍토속에서는 사상의 자유, 인간의 개성, 평등의 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民主主義思想은 싹틀 수가 없었다.

朝鮮王朝에서 이상적인 인간관은 선비(士)思想이다. 그러나 선비는 국왕 밑에서 벼슬을 하고 立身揚名해야만 그 뜻을 펼 수 있다. 벼슬(官職)의 추구, 이것은 어느새 선비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목표가 되었다. 전술한 바 專制王朝의 二重的 피라밋형의 位階秩序에서 출세는 인간으로서 극히 당연한 욕구가 되어 이것은 모든 사람의 심층심리에 수세기동안 파고 들어갔다. 解放直後 民主主義 韓國에서 高等考試를 옛날의 과거로,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왕조시대의 벼슬로, 景武臺를 大闕로, 大統領을 임금으로 보고 싶어 하는 의식구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하여 마치 옛날 장안으로 몰려 들듯이 그 많은 사람들이 벼슬길을 찾아 수도 서울로 몰려들었다. 이러한 사고는 서서히 소멸되어 갔지만 아직도 그 잔재의 일부는 우리의 의식속에 남아있다. 그리하여 民主主義制度는 수립했지만 그것은 제대로 가동될 수가 없었다.

朝鮮王朝에 民主主義思潮가 흘러 들어온 것은 1876년 江華條約이 체결

되고 門戶를 개방한 이후의 일이었다. 당시의 朝鮮國에서는 밀려 들어오는 외세앞에 國運이 절대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朝廷은 派爭과 부패와 무능 때문에 붕괴 직전에 있었다.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국정의 紊亂으로 민족적 운명이 크게 흔들리고 있을 때 救國策을 둘러싸고 兩班階級의 이데올로기는 분열되어, 朱子學의 純正을 고수함으로써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려던 衛正斥邪派,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富國強兵策을 실시하려던 開化自強派, 그리고 農民革命으로 封建의 身分制度를 타파하며 일체의 외세를 힘으로 구축하려던 急進的 東學黨 등 3大系譜의 民族主義運動이 출현한다.

이런 民族主義運動은 甲申政變—東學革命—獨立協會運動—義兵抗爭—愛國啓蒙運動으로 발전해 갔다.³⁾ 이 시기에 民主主義思想은 민족적 자주, 민권, 법치주의, 민중의 개념을 중심으로 조금씩 수용되었는데 그것이 명백하게 의식화된 것은 「獨立新聞」에서였다. 이에 관해서는 근년 한국사학계가 많은 업적을 쌓아 왔음으로⁴⁾, 이 연구분야의 圈外에 있는 필자가 첨가할 것이라고는 없다.

1896년 7월에 창립되어 1898년 12월말까지 2년 반동안 계속된 獨立協會運動은 民族主義의 民主的 愛國心을 고취했으나 그것으로 기울어져 가는 國運을 돌이키지는 못했다. 그 뒤를 이은 愛國文化啓蒙運動은 민중계몽의 매개체로서의 근대적 저널리즘을 발전시켰으나 여기서 열렬히 고취된 것은 民主主義思想이 아니라 反日的 民族主義思想이었다. 이미 시자를 다루는 國家存亡의 위기 앞에서 民主主義思想은 뒤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1905년의 乙巳保護條約에 의하여 大韓帝國은 사실상 멸망했고, 1910년의 韓日合邦은 日本帝國主義의 韓半島침략의 완결을 ‘法的’ 절차에 의하여 선언한 것에 불과했다.

3) 이러한 발전단계의 분류는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1920)를 따랐음.

4) 舊韓末의 民主主義思想 수용에 관해서는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編, 「東亞研究」, 제12집, (특집: 亞細亞에서의 民主主義 受容 (1), 1987년)을 참조.

韓半島를 植民化한 日本帝國主義는 정치적 박해, 사상적 강압, 경제적 수탈이라는 三位一體의 수단으로 韓國民族을 통치했다. 1910년부터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 9년동안은 최악의 암흑기였다. 이 시기에 民主主義는 국내에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美國內의 獨立運動團體인 大韓國民會議는 1912년 11월 中央總會結成宣布文에서 “형질상 大韓帝國은 이미 쇠하였으나 정신상 民主主義國家는 마야호로 발흥하여, 그 희망이 가장 깊은 이 때에……”⁵⁾라는 구절에서 民主主義 獨立國家의 건립을 천명한 바 있다. 이것은 日帝下에서 나온 최초의 民主主義宣言이 아닌가 생각된다. 民主主義가 民族獨立運動의 이념으로서 국내인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천명된 것은, 3·1운동의 폭발 전야인 1919년 2월 在日本 東京朝鮮靑年獨立團의 《2·8獨立宣言書》에서 새 국가의 정치적 원리로서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民主主義위에 先進國의 모범을 따라 새 국가를 건설”⁶⁾을 선언한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3·1運動의 渦中에 국내에서 선포한 《國民大會約法》도 그 第1條에서 “國體는 民主制를 援用함”⁷⁾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시할 것은 1919년 4월 大韓民國臨時政府가 上海에서 조직될 때 《憲章》第1條가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⁸⁾이라고 명문화함으로써 韓國의 장구한 역사에서 정부의 이름으로 비로소 民主共和國를 선포했다는 점이다. 그후 民主主義는 국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獨立國家의 基本原理로서 정착된 것이다.

Ⅲ. 韓國의 民主主義의 方向

日帝下에서의 韓國人의 民主主義란 하나의 막연한 이상이였으며 당면한 급선무는 民族的 獨立이었다. 간헐적으로 民主主義란 말이 언론에서 나오

5) 김용원, 「在美韓人五十年史」, 1959, p. 109.

6) 柳光烈編, 「抗日宣言, 倡義文集」(서문문고), p. 160.

7) 국사편찬위원회편, 「韓國獨立運動史」 자료 2, 臨政編, p. 10.

8) 上揭書, p. 1.

기는 했으나, 절대적 목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日帝로부터 해방되는데 있었다. 따라서 歐美의 民主主義思想—運動—制度的 역사나 政黨政治의 운영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植民國 日本은 韓國에다 政治思想의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었으나 民主主義에 관한 한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3·1 運動을 전후하여 日本國內에서는 ‘大正民主主義’를 구가하고 있었지만 日本人 一般은 韓國人에 대한 민족적 멸시감에 가득차 있었고 日本民族의 영광을 帝國主義的 對外進出에서 찾고 있었다. 日本의 良心派를 대표하여 韓國의 독립을 원칙적으로 시인할 것을 주장한 사람은 吉野作造⁹⁾를 비롯한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 위에 일본 자체가 天皇制下에서 民主主義의 발전이 극도로 제약을 받아 오다가 中·日戰爭을 계기로 軍部파시스트支配下에 들어가게 된다. 日帝治下에서 韓國人은 최소한의 地方自治마저 배울 길이 없었고, 정당의 조직은 엄금되었으며, 韓國人은 投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내왔다. 專制主義 朝鮮王朝에서 500년을 살아온 韓國人은 亡國과 더불어 朝鮮總督의 軍事的 獨裁治下에서 다시 40년을 살아야 했다. 이와 같이 民主主義制度的 불모지대에서 20세기 중엽까지 살아온 韓國人에게 해방후 民主主義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순조로이 발전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韓國에서만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第2次大戰後 民主主義는 전인류의 시대적 사조로서 절대적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이른바 第3世界의 新生獨立國과 開發途上國의 거의 모두는 歐美의 先進國을 모델로 하여 民主主義的 政治制度를 수립했다. 이곳의 지도자들은 대개가 歐美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西方諸國의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民主制度를 권장했다. 立憲民主主義를 ‘부르조아獨裁’라고 비방해 온 共產主義者들은 마

9) 吉野作造, 「中國, 朝鮮編」(東洋文庫)中 “3·1 運動論” 및 “關東大震災까지의 朝鮮論” 참조.

르크스·레닌主義에 입각하여 그들대로 人民民主主義를 들고 나왔다. 그 형태는 어떠한 '民主主義'는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권위를 획득한 것이다.

그러나 開發途上國들에서 民主主義制度가 정착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후 불과 수년이 못가서 內亂, 暗殺, 暴力的 政變, 宗教紛爭, 種族紛爭, 軍事쿠데타 등의 살벌한 權力鬭爭을 통해 民主政治의 토대를 전복하고, 獨裁體制, 強權體制, 權威主義로 불리우는 다양한 체제가 '民主主義'의 이름에서 출현했다. 民主主義憲法을 채택하고 制度를 수립해 놓으면, 自由와 平等은 당연히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 第3世界 나라들의 理想主義的 착각이었다. 1962년에서 75년까지에 第3世界 여러나라들에서는 104회의 쿠데타가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民主主義의 破產宣告가 아닐 수 없다.

第3世界 나라들에서 民主政治가 좌절된 社會的, 政治的 條件으로서 大衆의 經濟的 貧困, 무교육, 文化적 전통, 종족적·인종적 분쟁, 군부의 힘, 국제정치적 영향 등은 實證的으로 분석되어 왔다. 韓國의 경우에는 人種, 宗教紛爭은 全無했고 教育水準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좌절은 거듭됐다. 6·25戰後 1인당 GNP가 80달러 미만이었던 것이 80년 초에는 2천달러에 도달했다. 그리고 지금은 3천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GNP 성장에 비례하여 民主政治는 발전하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民主主義가 반드시 經濟發展과 函數關係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에서 일단 衣·食 문제가 최소한도에서나마 해결되고,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전통적 농경사회가 현대적 산업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는 國民大衆의 政治參與에 대한 욕구는 필연적으로 표출되어 執權政府에 저항하게 되기 마련이다. 韓國에 있어서 70년 이후 격렬하게 일어난 民主化運動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後進國은 先進國의 거울에 비추어 자기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民主主義를 論할 때 누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링컨의 유명한 케티스버어

그연설, “人民의, 人民에 의한 그리고 人民을 위한 政府(法)”라는 한 구절이다. 韓國의 경우 국민학교학생들은 해방직후부터 이 진리를 배우고 의었다. 이 말의 위대한 창시자는 링컨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수년 앞서 파커(Theodore Parker)가 이 말을 했고, 다시 웹스터(Daniel Webster)가 파커보다 20년전에 美國上院에서 民主主義를 “人民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人民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人民에게 책임을 지는 政治”라고 定義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14세기에 영국의 종교가 위클리프(John Wycliffe)가 그런 定義를 사용했다고 한다.¹⁰⁾

그러나 英·美의 앵글로 색슨적 사상풍토는 民主主義가 發育할 수 있도록 천연적으로 마련된 비옥한 땅은 아니었다. 그곳에서도 民主主義는 特權階級の 反抗, 反民主思想의 역습, 많은 사람들의 反感과 誹謗과 공포감 또는 적의에 부딪치면서 발전해 왔다. 英國에서 美國으로 신앙의 自由를 찾아 피해 간 초기의 淸教徒들을 마치 民主主義의 전파자처럼 믿고 싶어 하는 설명에는 중대한 反論이 있다. 淸教徒로서 매사추세츠주지사가 된 존 윈프로프는 民主主義는 모든 政治形態중에서 “가장 천박하고 나쁜 것”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淸教徒목사 존 코튼은 民主政治를 “神意에 어긋나는 길”이라고 해서 배척했다는 것이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데모크라시는 西歐民主主義의 살아 있는 古典이 되었고 美國은 세계최초의 民主共和國이라는 영예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民主主義를 위해 天惠로서 마련된 政治文化란 역사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思想으로서, 運動으로서, 制度로서의 民主主義는 西歐에서도 가혹한 박해, 피어린 투쟁, 존망의 시련을 겪는 동안에, 그리고 부단한 자기반성과 자기변혁을 통해 발전해 왔다.

第2次大戰의 서광으로서의 民主主義가 하나의 幻想으로 逆轉된 것은

10) Saul K. Padover, *The Meaning of Democracy*, 1963, 拙譯, 소울 K. 파도버, 「민주주의의 이념」(탐구문고), p. 10.

11) 前掲書, p. 27.

대체로 60年代 初부터였다. 歐美社會에서는 수세기를 두고 쟁취한 民主主義를 開發途上國은 大戰의 덕분으로 거의 공짜로 도입했고, 그 理念과 制度운영의 복잡성에 대한 검토없이 萬能의 靈藥인양 통채로 삼켜버렸다. 현실적 결과가 신통치 않자, 이번에는 民主主義에 대한 懷疑論과 冷笑主義가 대두했고, 심지어는 第3世界國民들의 民主主義 無資格論으로까지 번져 나갔다. 이것은 韓國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나라들에서 民主主義의 主·客觀的 條件의 미숙 내지 결여 때문에 社會가 부단히 동요해 온 것은 실로 역사적 고뇌다. 이틈을 타서 民主主義는 超保守主義者와 성급한 急進主義者들에 의해 도전을 받아 왔고 지금도 받고 있다. 韓國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니다.

韓國은 지금 民主主義를 수용, 발전시키는 데서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다. '民主化'를 國政의 指標로 내세운 第6共和國의 장래는 院內議席의 分布상황과 青年學生들의 急進主義化傾向때문에 반드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더우기 우려되는 것은 民主主義의 牽引車役割을 해야 할 政黨制度의 未備이다. 그 위에 대중의 폭발적 소비욕구는 民主主義에 대한 信念을 갈아 뭉개고 있고 각종의 社會的 葛藤과 非理가 도처에서 터져 나오는 데다가 政府는 '民主化'時代라고 해서 結集力을 잃고 있다.

第3世界의 超大型國家인 中共은, 이데올로기는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이지만 四個現代化에 안간힘을 쓰면서 그것을 위하여 政治體制를 一黨支配에서나마 보다 총화하는 면으로 개혁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심은 우리와 유사하다. 87년 10월 6일부의 論文 "中國의 第2次革命에 대한 고찰"은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러한 變革期에는 大衆의 消費意識의 과도한 문제, 일부 사람들의 民主意識의 과도한 문제, 그리고 變革期에 특유한 각종의 社會主義 矛盾이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발전도상국이 社會主義를 향해 가는 資本主義를 향해 가는 결집력과 권위 있는 政府는 어떻게 필요한 것이다.¹²⁾"

12) 「世界週報」, 1987년 11월 24일자, p. 14.

中共의 경우는 一黨獨裁에 의하여 그런 政府를 가질 수 있겠지만 民主主義 韓國에서는 그것은 至難한 것이다.

韓國의 GDP(國內總生産) 成長率은 87년에 14.5%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도 消費者物價의 경우는 3.4%, 都賣物價의 경우는 0.7%이므로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조건에 비례하여 民主主義는 더 많이 수용되고 發展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는 國民一般의 社會水準, 政黨엘리트의 資質, 大衆의 政治形態, 南北韓 關係 및 國際情勢의 動向, 知識人들의 態度 등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만을 지적해 둔다.